

정읍 첨단과학산단 강소기업 투자 문의 쇄도

최근 시·유니넷시스 1만4128㎡에 56억 투자 협약 체결 이원컴포텍·쓰리에이시 등 총 30여개 업체 정상 가동

정읍시가 조성한 첨단과학산단입지에 강소기업의 투자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유니넷시스와 첨단과학산단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청에서 체결했다. 유니넷시스는 오는 2021년까지 첨단과학산단 내 1만4128.6㎡(4274평) 부지에

56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입주 완료 시 2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유니넷시스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환기 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업체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출력전압 가변장치와 단위 배터리셀 조립구조체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사업인 이노비즈 인증을 받아 원격 감시 시스템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첨단과학산단입지에 투자를 결정해주신 (주)유니넷시스에 감사드립니다”며 “정읍 공장 신설로 유니넷시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발돋움하

고 지역경제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첨단과학산단입지는 80%의 투자협약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도, LH,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함께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해 오는 2019년까지 분양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현재 첨단과학산단입지에는 이원컴포텍(주), (주)쓰리에이시 등 30여개 기업이 투자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또는 건축 준비 중에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전북도 종합 3위 목표

전북선수단이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종합 3위를 목표로 출전한다. 전북체육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47개 종목에 1725명(선수 1315명·임원 410명)이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선수단은 올해 종합 점수 4만8800여점을 획득해야 차지할 수 있는 전체 순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47개 종목 중 육상과 수영, 역도, 펜싱, 유도 등 17개 종목에서 선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선수단은 지난해 충북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종합 11위(3만2455점)를 차지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 금암광장 교차로 개선공사 내달 초 착수

교통혼잡 5거리로 4거리로 기린대로상 교차로 설치도

전주시는 5거리 형태(사진)의 불합리한 기하구조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금암광장 교차로를 4거리 형태의 교차로로 변경하는 공사를 오는 10월 초 착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기린대로와 팔달로의 양방향체계를 일 방향으로 바꾸는 대신 금암광장에서 시청 방향으로 약 150m 떨어진 기린대로상에 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암광장 교차로는 기린대로와 팔달로, 가리내로, 조정대로 등 전주 시내 주요 도로가 접속하는 5거리 형태의 교차로로, 교통량이 많은 기린대로와 팔달로가 이 교차로에서 합쳐지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이곳의 구조를 잘 모르는 외부 및 초보 운전자 등이 진땀을 흘리거나 차량정체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교



통 관련 유관기관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총 18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금암광장 교차로가 전주시 주요 도로와 접속하는 교차로인 만큼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사

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기린대로와 팔달로의 2개 도로가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교통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 진입하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청년 시정참여 확대·현안 해결 익산시, 청년분과위원 10명 모집

익산시가 청년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에 나선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청년문제 정책 사업 발굴과 예산 과정 참여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위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청년분과 10명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0월 8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만18~39세 청년이다. 희망자는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익산시 기획예산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과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다. 익산시는 청년분과와 제안사업에 인규입과 관련된 정책 발굴 추진 등을 위해 2억원의 예산을 부여, 청년층 인구유입 등 익산시 인구 증대를 도모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j@kwangju.co.kr

군산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내달 10일까지 시민 모두 참여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시상도

군산시가 지역 맞춤형 중장기 인구정책을 마련하고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군산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창출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저출산 대응정책, 청년 일

자리 문제, 과소(過小) 마을 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인구 유입 및 감소대책,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인구문제 대책과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이다. 군산시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이메일(ssdw0116@korea.kr) 등의 방법으로 공모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경제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부서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시민은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1명 50만원, 장려상 3명 각 10만원의 군산사랑 상품권과 시장 표창으로 이뤄진다. 시 공무원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1명 30만원, 장려상 2명 각 10만원의 군산사랑 상품권과 시장 표창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공모전은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군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

문화재청 ‘2019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

‘나주복암리고분 창의감성학교’ 선정

나주시 2년 연속 선정

나주시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19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은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문화유산 교육으로 지역 정체성 강화와 애호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나주 복암리고분, 창의 감성학교’는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지역 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유산과 청소년기의 창의성·감성을 융합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창의감성학교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나주시다시면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에서 단계별 3개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대 마한의 풍습을 재현하는 유치원 맞춤형 체험 행사로 ‘마한 의상 입기’, ‘기마 및 마차 탑승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초등학생을 위한 역사체험 프로그램으

로 ‘고대 마차 조립’, ‘독무덤(옹관) 만들기’, ‘전통 두부 체험’ 등을 진행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문화유산의 과학원리와 지능개발, 집중력을 향상하도록 계획된 창의형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미래의 나에게 전하는 편지’와 기념품을 담아 학교 졸업 후 열어볼 수 있는 ‘옹관 타임캡슐’, 자신의 미래를 기원하는 ‘기원 팔찌 만들기’ 등 문화유산과 청소년기의 감성을 융합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이나 자유학기제 사이트 ‘꿈길’을 통해 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복암리고분 창의감성학교는 동시대 나주복암리고분에서 단계별 3개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대 마한의 풍습을 재현하는 유치원 맞춤형 체험 행사로 ‘마한 의상 입기’, ‘기마 및 마차 탑승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초등학생을 위한 역사체험 프로그램으

완도군 ‘사랑의 김·미역 복讎보내기’ 청신호

군, 남북정상회담 계기 모금운동 등 활발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김·미역 복讎보내기 운동’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사랑의 김·미역 복讎보내기 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막혀 인도적 지원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완도군과 운동본부는 대북제재가 해소될 경우 관바로 김·미역 보내기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운동본부는 총 사업비 3억원 목표로 추진중이며 현재 2억5000여만원(현물 포함)을 모금했다.

완도군은 통일부, 남북교류지원협의회 등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 민경련과 MOU체결을 추진중이다. 특히 김·미역 보내기 운동을 넘어 수산양식 기술 보급을 통한 근본적인 식량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 안에 대북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통일부와 여러 단체들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 가능성 여부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과 운동본부는 지난 2000년 9월 1억5000만원 상당의 마린미역 23t을 시작으로 2001년 2월과 3월 간미역 1000t씩 2회, 2003년 5월 김 78만속, 2006년 12월 자른 간미역 30t을 지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목포자연사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내달 1일 무료개방

목포 자연사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가 다음 달 1일 목포시민과 자매결연도시 주민에게 무료 개방된다. 무료 개방 관광지는 자연사박물관·어린이박물관·생물도자박물관·근대역사관·목포문학관 등 다섯 곳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10월 1일 제56회 목포시민의 날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박물관 등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1일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목포시민의 날 경축행사를 한다. 이날 행사에는 목포의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다짐하는 축하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지까지 30분거리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